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 Matthew 11:28-30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공석우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 김은화 이화니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 열방을 섬기는 이들

태 국	배종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NOVEMBER 19TH 2023

HOPE CHURCH



####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Agape Hall (314)786-5018

# 연합 추수 감사주일

SUNDAY THANKSGIVING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105번 Thanksgiving Day (1)
참회의 기도	벧후 2 Peter 3:9
찬송	찬 29장 성도여 다 함께 다같이
기도	백형수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찬양	다 감사 드리세 Anthem of Gratitude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에스라 Ezra 6:14-22, OT p 718
말씀	우리들의 봉헌식 / 김성직 목사
Sermon	Our Dedication
*결단의 찬양	은혜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 목회자칼럼 // 김성직 목사

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예지론>에 의해 구원 얻도록, 즉 무조건 구원 얻을 백성을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고 믿는다. ('예정예지' 하고, '예지예정'의 차이에 유념하라.)

이에 반해 어떤 이들은 가르치기를 “우리가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을 선택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협력구원설, Synergism>이라고 하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아르미니안 주의자, Arminian>이라고 부른다. Arminian이라는 말은 17세기에 Holland의 Leyden (라이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Jacobus Arminius라는 교수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건부 선택, 즉 “예지예정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아르미니안주의자, Arminian>이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이나 9장, 또한 에베소서 1:4에 보면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거한다고 가르친다. 특히 로마서 9장을 자세히 읽어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조건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믿는다.

셋째,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개혁주의 신앙은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혹은 Particular Atonement>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

함이라고 믿는다. 이 말은 요한복음 17:9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입증된다. 또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요한복음 13:1에서 말씀하신다. 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살후 3:2 에서도 말씀하신다. 요한일서 2:2 말씀을 들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문제의 요일 2:2에서는 <천하 만민 중 종족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자유자나 종이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이지, 그것이 보편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틀립선교회, 김명도목사)

##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사상 4.

계속해서 전에 살펴봤던 “개혁주의 신앙”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들이 말씀 반석 위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한인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글은 ‘틀립선교회’의 김명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계속해서 전에 살펴봤던 “개혁주의 신앙”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들이 말씀 반석 위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한인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글은 ‘틀립선교회’의 김명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III. 개혁주의 신앙의 구원관

개혁주의 신앙은 구원관에서 다섯 가지 교리를 믿고 가르친다. 그 다섯 가지란, 1. 인간의 완전타락 (Total Depravity), 2.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3.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4.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5.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등인데, 차례로 하나씩 설명한다.

첫째, 인간의 완전타락 (Total Depravity).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에 팔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을 전부 상실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죄의 노예(bondage to sin)가 되어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으로 살아간다. 옛날 기원 5세기에, Pelagius(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한 소치이며, 성경은 시편 14:1이나, 이사야 1:6, 롬 3:11이나, 엡 2:1-9에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음을 말씀으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효과적 부르심, effectual call>에 기인한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완전타락을 믿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고 믿는다.

둘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지옥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중에서 구원 얻을 자를 택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며,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

## 성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Thanksgiving Day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들의 봉헌식 (스 6:14-22)

< 본문 속으로 >

1.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나요? (14절)
  
2. 이스라엘 자손이 일단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나요? (16절)
  
3.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에서 속죄제는 무엇을 따라 솥염소 열두 마리로 드렸나요? (17절)
  
4.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지켰나요? (19절)
  
5.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을 또 뭐라고 부르나요? (21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배상진 장로님: 노환으로 힘든 중에 계십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치료중이십니다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우리들의 봉헌식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서로 화답하고 지켜주는 즐거운 예배자가 되어가야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는 과연 서로 화답함이 있는지,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는 혹은 관람객은 아닌지, 또는 나 혼자만 흥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는 서로 화답하고 지켜주는 즐거운 공동체가 맞는지, 돌아보세요.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2. 우리들의 봉헌식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함께 처음으로 회복되어가는 예배자가 되어가야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 안에 말씀과 자꾸 어긋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채워넣어야 할, missing pieces는 무엇인지,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떠한지, 내게 맡겨주신 방주는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인지, 행여 missing person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3. 우리들의 봉헌식에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신앙인이 되어가야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느 순간 가물가물하지는 않는지, 이런저런 핑계들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과연 누구의 힘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11/19		11/26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교회 안내	김선아 집사	교회 안내	김일복 권사
통역	송명신 자매, 문강한 전도사	번역/통역	김예람 자매,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1조 구역	애찬 담당	키르키즈스탄 구역
교회 청소	케냐 구역 (11월)	교회 청소	케냐 구역 (11월)

향기로운 예물 11/12/2023

주일	\$1,135	건축	\$50	주일학교/유스	\$0
십일조	\$3,510	첫열매	\$20	추수감사	\$100
감사	\$510				
선교	\$0				
구역선교	\$500			헌금총액	\$5,825.00

헌금 외 수입금

Hope Cafe \$35

\$35

입금총액 \$5,860.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온가족이 함께 하는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2. 안수집사/권사 피택자교육

오늘과 다음 주일(11월26일) 식사교제 후 1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3. 추수감사절 당일

추수감사절 당일(11월23일 목요일 5PM) 외로우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담임목사님 가정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니깐 그냥 오셔서 함께 식사교제 나누시면 됩니다.

4. 주일 설교

다음 주일(11/26)에는 송용걸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5. 2024년교회달력

2024년 달력도 도착했습니다. 한 가정에 탁자용 1개, 벽걸이용 1개씩 가져가세요.

6. 김치 판매

선교를 위하여 김치를 판매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모로코 구역 (오귀록 장로 임희남 권사)과 김영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한상열 (이상진 자매) 교우님 가정 위해서 - 소희, 지희  
 1. 가족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2. 아내 이상진 박사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늘 주를 의지하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아이들 학교 생활 잘하고 좋은 선생님과 교우를 만나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교회행사

11월 19일 (주)  
추수감사주일

11월 23일 (목)  
추수감사절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디너  
@5PM

12월 3일 (주)  
임직식  
(2부 예배 중)  
정기당회

12월 10일 (주)  
예결산 위원회

12월 17일 (주)  
제직회 총회

12월 24일 (주)  
성탄예배  
공동의회

12월 31일 (주)  
송년예배  
송구영신예배  
(11PM, 성찬식)